

‘성폭행’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팔 걷어붙인 여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가 나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정책간담회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보고를 마친 뒤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박 시장. /연합뉴스

새누리, 전남교육청 방문 ‘여교사 성폭행 사건’ 조사 “신안에 경찰서 신설 추진…반인륜 범죄 양형 기준 검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각각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는 이날 오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가 나섰다. 이들은 비공개로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치안문제를 위해서라도 신안경찰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경찰서 신설 문제는 지난해 행정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경찰서 신설이 추진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신안군의 치안

수요보다 높다는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여성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사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현장에 직접 나왔다”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러 ‘구의역 사고’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지만 박 시장이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점을 감안해 전임 시장을 때부터 누적이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는 등

더민주 ‘구의역 사고’ 긴급 정책간담회 김종인 질타에 고개 숙인 박원순…메피아 근절책 등 보고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무조건 제 불찰이고 책임이다.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새겨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90도로 숙이며 몸을 낮췄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사과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것이 계기가 돼 여러 가지 협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박 시장께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외주화된 위험업무의 직영화, 메피아(메트로+관피아) 근절, 지하철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대책을 보고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비공개 부분에선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져 박 시장이 진땀을 뺐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서울시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참담하다. 이번 사고는

사회 부조리의 집합체고, 시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박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근본대책을 꼭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정 당 대변인이 전했다.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관에 우제는 반드시 적절 돼야 할 문제다. 국민은 세월호 아픔을 겪으며 죽어야 좋아지느냐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죽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적 문화가 만연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시장은 간담회 말미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전관에 우제를 바로 체결하고 스크린도어 정비 직영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당의 수치가 자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당직자 선발 ‘불공정 공채’ 논란

312명 지원 9.2대 1 경쟁률...安 후원회 간부·전직의원 보좌진 등 절반 채용

국민의당 중앙당 당직자 공개 채용 결과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개 채용된 당직자 가운데 일부가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의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는 등 ‘무늬만 공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입수한 국민의당 내부 자료에 따르면 A 전 의원의 비서관이 부국장으로, B 전 의원의 비서와 C 전 의원의 지역위원장 간사가 부장으로 채용됐다.

특히, 안철수 상임대표의 후원회 간부도 부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행정 보좌요원들도 중앙당 간사와 차장으로 채용됐다. 여기에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보험사와 여행사 직원은 물론 은행원과 오페라 캐스터, 지자체 공무원 등도 당직자로 채용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당직자 공개 채용을 앞두고 당 내외의 유력 인사들의 추천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당직자 공채에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공정 성장론’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국민의당이 당직자 공채에서는 암묵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모 중진 의원은 “아이가 없는 공

채 결과”라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국민의당에 신뢰를 주겠느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채에 응모했던 김모씨는 “면접에서 두어가지 질문만 하는데 그쳐,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의당은 청년의 눈물을 뒤아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늬만 공채인 것 같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공모에는 312명이 지원했으며 33명이 채용돼, 9.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지역위원장 공모 지자체장은 제외

광주 민형배·최영호 구청장 배제될 듯...조강특위 기준 발표

광주의 현직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인주 조강특위 부위원장은 8일 조직강화특위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위원장 심사와 관련, ▲총선에서 개인득표율과 정당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 ▲3위 낙선자 ▲다회 낙선자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심사 대상이 되면 지역위원장 후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대위는 현직 지자체장은 향후 선거운동 등 정당활동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조강특위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비대위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다른 후보자가 없거나, 사고당 지정으로 대행체제일 때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지역위원장 심사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자체장을 지역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전국의 당 소속 지자체장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해서 큰 혼란이 일 것”이라며 “또 내년 대선 때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기록한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역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3위로 낙선한 경우나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해 여러번 낙선한 낙선인의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초중순께 발표할 전망이다. 복수후보가 지역위원장직에 도전한 경우에는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조강특위가 직권으로 임명하거나 경선을 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히말라야 트레킹 나선다

네팔 방문 봉사자들 격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주 중 히말라야 트레킹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8일 “10~15일째 대략 2주 정도의 일정으로 히말라야를 갔다 오는 쪽으로 가락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가 다음주부터 네팔 일대를 방문, 지친 피로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두루 위로 및 격려할 계획이며,

한국인이 지원하고 있는 네팔 현지 학교를 방문, 일일교사로 봉사하면서 오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오래전부터 이 학교를 지원해온 한국인 후원자들로부터 방문 및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총선 등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방문하게 됐다”며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한 기억과 함께, 힘들게 공부하는 제3세계 어린이, 청소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는 개인적 희망에 따라 초청에 응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3.5%

면제율 19대보다 2.1%P ↓...국민 면제율보다 12.9%P 낮아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의 직계비속(아들과 손자)도 일반 국민보다 면제받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8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18.6%) 때보다 2.1%포인트 떨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면 12.9%포인트나 낮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